

편의점업계, 추석선물세트 판매

세븐일레븐 500·CU 280여종의 선물 풍성하게 준비

편의점 업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목집기에 나선다.

29일 세븐일레븐, GS25, CU, 미니스톱 등 편의점 4사는 일제히 추석 명절 선물세트를 선보이며 추석 상품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총 500여종의 상품을 선보였다.

세븐일레븐은 일반적인 명절상품 보다는 실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실용 상품에 대한 구색을 한층 강화하는 등 전체 상품 중 약 40%를 H&B 잡화, 가정용품, 가전 등으로 구성했다.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정육(30종)과 과일(26종)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동향성농협의 횡성한우 상품 9종을 선보였다.

대표 상품으로는 어사풀 갈비훈장

세트(22만9000원), '어사풀 혼합정육 세트(10만9000원)' 등이 있다. 과일류에서는 '일조바세트5kg(3만2000원)', '소백산나과세트5kg(4만5000원)' 등이 대표 상품이다.

CU는 추석을 맞아 280여종의 풍성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다.

CU는 직접 요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과 제휴를 맺고 주방용품 31종을 특기에 판매한다.

인덕션렌지(6만5000원), 3D디이아

몬드코팅 후라이팬(2만원), 요구르트

메이커(2만2000원), 믹서기(5만5000원)

등 활용도 높은 상품들로 구성했다.

CU는 다음 달 '김영란법' 시행을 앞

두고 5만원 이하의 실속형 상품을 찾

는 고객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관련 상품의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5만원 이하의 상품은 약 190종으로

GET커피 종합선물세트(2만2000원), 흥삼진액세트(3만2500원), 정성가득배

세트(4만4000원) 등이다.

편의점 GS25는 PB상품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GS25는 지난 4월 LG생활건강과 손

잡고 개발한 프리미엄 두피 전용 라

인 '트리콜로지스트리' 헤어케어 상

품 등이 포함된 '유어스행복선물세트'

를 출시했다. 유어스행복선물세트

는 트리콜로지스트리 샴푸, 트리콜로

트 수딩워터 3종으로 구성돼 있다.

편의점 미니스톱은 5만원 이하의 저

가 상품의 비중을 60% 이상으로 구성

했다.

대표 상품은 '쁘르페띠 사과배합

세트(29입)이 5만원, '제수용 세트(사과

4입, 배4입)이 4만6000원, '남원운영기한

과 춘향꽃 한과 변사포'가 4만7000원

등이다.

/뉴시스



"추석 선물세트는 저렴하게"

29일 오전 서울 이마트 청계천점에서 모델들이 추석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구로점, 영등포점, 성수점 등 1차 점포 3개점을 시작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전국 점포에서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에 나선다.

군산의 업록소 통곡물 상품
서울 현대백화점 본점 입점

군산시에서 국내 최초로 업록소 통곡물을 전문 생산하는 농협회사법인 울립(유) 자사제품의 업록소 통쌀과 업록소 통보리, 업록소 통밀, 업록소 혼합잡곡이 29일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과 신촌점 입점했다. 또 추석 이후 현대백화점 전국 매장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한층 주목받으며 올 가을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됐다. 건강 등 기능성 곡물을 찾는 이들에게 선호적 인기를 얻고 있는 '업록소 통곡물'은 쌀, 보리, 밀에 들어있는 천연 업록소를 자연 그대로 보존시킨 고품질 기능성 통곡물이어서 시선을 끌고 있다. 통곡물이란 곡물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시켜 도정한 곡물로 현미와 비교해 현미는 겨울의 식감이 거칠고 누런 색감을 띠는 반면 업록소 통곡물은 거친 현미의 겨울의 식감을 느낄 수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국도변 불법시설물 정비 추진

남원국토사무소, 순창군 등 전북 동부권 환경정비

남원국토사무소가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도변 불법시설물 정비가 관광객과 운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7월부터 전라북도 동부권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등 6개 시·군 지역 국도(총 589km)변에 무단으로 설치돼 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불법시설물 정비는 해당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특별대책반(4개반, 50명)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

려 안전운전을 방해하거나 경관을 해치는 불법 표지판과 현수막, 적치물 등이다.

지난 2개월여동안 노점 6개소와 표지판 212개소, 현수막 704개소, 고랑하우저치물 22개소 등 총 944개소를 적발해 이 가운데 869개소는 즉시 철거했다.

남원국토사무소 장복수 소장은 "국도변에 불법시설물이 시민지자 관광객들과 운전자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고, 주민에게 공감하는 지역 주민들도 점차 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정비활동을 통해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한 국도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전북은행, JB카드 추석이벤트

30% 할인 진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추석 시즌에 유류비, 외식비, 선물 준비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29일 전북은행에 따르면 고객들의 추석 계획에 따라 다양한 업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JB카드 추석 이벤트'를 진행한다.

JB카드 고객들은 해당 이벤트를 통해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에서 3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선물세트를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이 혜택 받고 싶은 업종을 직접 선택하는 이벤트도 눈길을 끈다.

전북은행 이벤트 응모 페이지에서 음식점 백화점과 주유 및 교통, 전통 시장 업종 중 원하는 업종을 선택한 후 해당 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이용하면 이용액의 10%를 고객별 3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가맹점 및 국내 면세점에서 10만 원 이상 이용액의 10%를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고객 사은행사 차원에서 진행되기에 다른 JB카드 이벤트 및 상품 서비스와 중복 혜택이 가능하다"며 "알뜰한 추석 준비를 위해 이벤트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덧붙였다.

/고민형 기자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전북중기청 내달 9일까지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9일까지 받는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를 말한다.

사업 신청자는 디자인 브랜드 개발, 방송광고 등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80%(2,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다만, 상반기에는 기업 받은 지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에는 11개 업체(30개 과제)에 1억700만원이 지원됐다. 참여기업은 정영형(7개), 개

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영형(7개)은 홈페이지, 동영상 제작, 시장조사, 키털로그, 디자인(시각·포장 및 제품), 브랜드 개발 등이다.

개방형(8개)은 SNS 마케팅, 검색 엔진마케팅, 방송광고, 전시회(국내·해외), 국내외 전문지홍보, 외국어 번역, 자재권 출원 등이 해당한다. 정영형과 제3자는 해당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기관 중에서 청원진 흥원(전담기관)이 전문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참여기업은 지정된 수행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개방형과 제3자는 주관기업이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1인 창조기업의 현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과제수행이 가능하다.

/신광영기자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도내 농업용 로봇업체 '방제드론' 등 선진 정보통신기술 '호응'

서울 'A Farm Show' 서 선봬

도내 농업용 로봇업체들이 선진 농업 정보통신기술을 선보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전북테크노파크에 따르면 농업용 로봇업체(주)나운 메타로보틱스는 지난 26~28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 '2016 A Farm Show'(창농·귀농 박람회)에 참가했다.

올해로 3년째 맞는 이번 행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각 부처장관 및 여야 주요 국회의원 등이 참석, 예

비 창농인과 귀농인을 독려했다.

도내 업체는 (주)메타로보틱스의 농업용 방제드론과 (주)나운의 섭유질사료 무인급이로봇이 전시됐다.

'농업용 방제드론'은 농민들이 가장 기피하고 힘들어 하는 방제작업에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인체에 유해한 장시간 작업과 농약 중독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고 무인헬기 1/4 가격으로 농가에 보급이 가능한 방제 전문 로봇이다.

섭유질사료 무인급이로봇'은 축산

으로 자동 급이 해 주는 로봇으로, 사료 급이에 대한 많은 노동력 및 가족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축산 급이 전문 로봇이다.

(주)전북테크노파크 백두옥 원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 지원은 전북 농업용 로봇 업체 제품의 대외 인지도 확장 및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지원을 통해 전라북도 농업용 로봇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